

정읍시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총력

시민 모여 카드섹션 퍼포먼스
투자협약·펀드 조성 등 온 힘
정부, 다음달 말 최종 선정



정읍시가 지난 27일 바이오산업 메카 도약을 위한 전 시민 결의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정읍시 제공>

정읍시가 정부의 바이오특화단지 공모 선정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아시아 바이오 산업 메카'를 향한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등 유치 의지를 다지고 있다. 정읍시는 최근 이학수 시장과 각 부서장 및 읍면·동장, 직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 자리에서 바이오특화단지 유치 여정에 힘을 싣기 위해 전 시민의 뜻을 모아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행사에서는 '전북바이오특화단지 유치 기원'과 '정읍을 바이오산업 허브로 육성'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카드를 들고 섹션 퍼포먼스를 펼치며, 전북자치도의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강력한 염원을 보였다.

정부는 오는 6월 말 바이오특화단지를 선정한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와 정읍, 전주, 익산 또한 결정되는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기업유치 및 투자협약, 펀드 조성, R&D 지원 등 막바지 바이오산업 육성 방안 세부 담금질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바이오 산업의 핵심 축인 정읍-전주-익산을 연계한 삼각벨트를 구축하고 각

시의 바이오 강점을 고도화하는 벨류체인 조성 방식으로 바이오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읍에는 ▲중개연구·비임상기반 바이오소재 공급지구 ▲전주 오가노이드 기반 소부장 산업화 촉진지구 ▲익산 글로벌 인체·동물 바이오 생산지구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읍시는 정부와 자치도 정책에 맞춰 바이오산업을 새로운 미래 먹거리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시 소재 R&D 혁신기관의 산악후보물질 전

임상 효능검증 및 비임상 독성안정성 검증 기술력에 기반한 신정동 첨단산업단지 일대를 신성장동력 바이오 산업단지로 키우는 야심찬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유치기원 퍼포먼스가 전북 자치도가 걸어가는 도전에 힘이 되길 바란다"며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범행정적 차원에서 뒷받침해 적극 협력을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 계절근로자 1500명 280농가 투입

입국 환영 행사...안전 요령·법적 사항·인권 보호 등 교육



지난 27일 고창 문화의전당에서 열린 '2024 상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환영식'에서 심덕섭 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들과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고창군 제공>

고창군이 관내 농촌일손을 돕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계절근로자들에 대한 환영행사를 열었다.

고창군에선 공공형 계절근로자 30명을 포함한 1500명이 들어와 지역 280농가에서 영농기 농가 일손을 돕고 있다.

환영식과 함께 치러진 교육에선 근로자 준수사항, 인권 보호, 농작업 안전 요령과 법적 사항, 무단이탈 예방 교육, 계절근로자를 위한 정책 등 계절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알렸다.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 인력난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농민에게 필요한 인력을 단기 고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가 호응이 크다.

근로계약 기간은 기본 5개월이며 농가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향후 재입국 초청도 가능하다.

특히 선운산농협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를 고용

해 하루 단위로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도 농가에서 만족도가 높다.

군이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도입한 외국인계절근로자 정책은 첫해인 지난 2022년 300여명에서 지난해 600여명, 올해는 1500명으로 매년 2배 이상씩 늘고 있다.

군은 베트남 및 캄보디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결혼이민자 분국 가족과 친척 초청 방식을 통해 도내 최대 규모의 계절근로자들을 입국시키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걱정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가와 근로자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 노암 제1농공단지 대변신 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공모 선정...31억 투입 쉽터·체육시설 조성

남원시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주관하는 '2024 활력 아름다운 거리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으로 남원시는 국비 20억, 도비 2억 5800만 원, 시비 8억 60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1억 원을 확보했다.

'산업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 공모사업'은 조성된 지 20년이 지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내 주요 거리, 공원, 공공공간을 활용, 아름답고 근로 친화적인 거리 및 청년 친화 생활서비스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남원시는 2003년 조성된 노암 제1농공단지를 공모 신청해 최종 선정됐다.

앞서 남원시는 노후화된 노암 농공단지 환경개선을 위해 실수요자인 입주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환경개선 의견을 수렴해 왔다.

노암 농공단지 입주기업인들은 농공단지 내 공용 회의공간을 비롯한 쉽터, 체육시설 공간 등이 부재한 것에 대한 대안을 시에 요구, 시는 이를 공모사업 내용에 반영했다.

남원시는 이번 공모선정에 따라 근로 친화형 쉽터 및 체육공간과 보행친화형 특색있는 가로 조성, 미세먼지 측정 및 범죄 안전 스마트 시설, 공장 노후 간판 개선, 상생문화공간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간에는 근로자 중심의 휴게공간으로, 야간에는 지역민들의 산책과 운동을 위한 일상의 힐링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노암농공단지의 근로환경개선을 지원해 신규 청년 인력을 유입시키고, 노암농공단지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공모사업을 진행, 통행 근로 친화적 사업 등을 만들어 계획이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빈 알루미늄 캔, 반려식물로 바꿔 드려요"

내장산국립공원, 교환 행사
'세계 환경의 날' 탄소중립 실천

"빈 알루미늄 캔 가져오면 반려식물 드려요."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는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내장산 식물자원의 가치를 알리고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반려식물 교환' 행사를 마련했다.

6월 1일부터 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반려식물 교환 및 체험 행사로 압축된 알루미늄 캔 5개당 단풍나무 1본과 교환할 수 있으며, 1인 최대 단풍나무 2본까지 수령 가능하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비닐 등 운반용품은 제공되지 않으며 별도의 식물 운반용품을 지참해야 한다.

압축된 알루미늄 캔은 가정에서 준비할 수 있고, 현장에서 접수 및 참여 가능하다.

이번 행사로 모인 알루미늄 캔은 제강용 탈산제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권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자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가 알루미늄 캔에 담아 산행객에게 제공할 단풍나무 모종.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원본조각장은 "반려식물 교환 행사는 내장산 단풍나무를 알리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소중한 행사"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천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도서관, 인문독서프로그램 확대

11년 연속 '길 위의 인문학' 선정...프로그램 각 1000만원 지원

고창군도서관이 '2024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며 인문학에 대한 관심과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을 담아 강연과 체험, 지역 인문자원 탐방 등을 결합

한 인문 프로그램으로 사업비는 각 프로그램당 1000만원이 지원된다.

고창군은 11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올해는 특히 사립작은도서관을 포함해 총 3개 기관 4개 프로그램이 선정돼 군민들에게 다양한 인문독서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군립도서관에서는 ▲고창에서 유네스코 7가지 보물 찾기 ▲어른들 그림책 학교를, 성호도서관에서는 ▲'주렁주렁 이야기를 대담'을, 사립작은도서관 책이 있는 풍경(신림면 소재)에서는 ▲'나를 찾아가는 인문여행' 주제로 다양한 인문학 강의와 체험, 지역탐방 프로그램이 7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나윤옥 고창군 문화예술과장은 "많은 군민이 참여해 지역의 인문학적 가치를 이해하고 도서관에도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362-3336**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